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7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6.11.(목)

사측 수정 제시안 제출... 교섭의무 항은 여전히 검토 중 초기업 교섭 · 채용 · 교섭권 보장 제시안 확인...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7차 집단교섭이 6월 11일 (목) 14시, 세진지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교섭에 앞서 13시10분부터 세진지회 현장순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에는 노측대표 정진홍 지부장 외 22명, 사측대표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박인룡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교섭에 앞서 세진 김민규 대표이사는 “세진은 경주 지역에서 거리가 먼 사업장인데, 멀리까지 참석해 주신 교섭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사회 환경과 노동법이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노·사가 신중하게 접근해 교섭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경주지부가 해온 전통에 따라 올해도 함께 지혜를 모아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교섭대표 모두발언에서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지난 6차 교섭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교섭을 진행하게 됐다”며 “그동안 사용자협의회는 교섭 진전을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 조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교섭도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세진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사업장”이라며 “지난해 회사 측의 원가절감 주장에 노동조합이 협조했지만, 이후 희망퇴직

공고가 붙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파괴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올해도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지부장은 현대자동차 고용안정위원회 중단과 부품사 단가 인하 문제를 언급하며 “상황들이 노동자를 심각하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할 당사자들이기에 최대한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그 길에서 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은 경비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사용자측에 부담되는 안이 없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해 소모적인 교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는 사측 수정 제시안 설명이 진행됐다.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와 관련해 1항과 2항은 중앙교섭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3항에 대해서는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 체계’로 확대 운영하고, 금속 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지부집단교섭 참여 주체들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활동을 보장한다는 제시안을 설명했다.

제19조 채용 조항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직무의 특성, 전문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채용 방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했다.

노조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항에 대해서도 사측 제시안이 제출됐다. 교섭의무 항에 대해서는 수정 제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와 관련해 “3항과 4항을 합쳐 하나의 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확인했다. 이어 “채용 관련 안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섭권 보장 방안이 제시됐다”며 “교섭 결렬까지 2주가 남아 있는 만큼 조합도 검토

를 거쳐 차기 교섭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차기 8차 교섭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사측제시안

①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 관련: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①, ② 중앙교섭 결과에 따른다. ③지자체 (경주시)는 지역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속노조 경주지부협약 제98조 미래산업 대응 노사공동위원회에 경주시(기업투자지원과) 참여하여 ‘노사정 협의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금속 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지부집단교섭 참여 주체들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활동을 보장한다.

② 제19조 [채용] 관련: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단, 직무의 특성, 전문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채용방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예외로 한다.

③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관련: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① 회사는 2026. 3. 10.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들이 조직·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교섭형태와 방식을 결정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제시안 수용